

농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

- 송미령 장관, 유통업체 찾아 사과 비정형과 및 국산대체과일 및 축산물 등
공급·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목)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 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 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체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판매현황을 둘러보며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대파 등 채소 판매대와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계란, 한돈자조금 행사를 진행중인 축산 판매코너를

잇따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한우, 한돈 등 축산물 할인 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여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한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 비정형과 판매 촉진, 대체 과일 공급 확대, 배추·무 비축·방출 및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지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홍근훈 (044-201-2260)

